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

정 장 현¹⁾

조 한 익²⁾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본 연구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 변인들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메타분석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메타분석에서는 102편의 연구논문을 최종 분석하였으며 이 중에서 생활만족도-정적적응은 63편, 생활만족도-부적응은 59편이다. 연구결과,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정적적응의 전체효과크기는 높은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부적응과의 효과크기는 중간정도의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와 개별적응 변인들과의 관계에 관한 전체효과크기를 보면 정적적응은 가족관계의 질에서 가장 높았으며, 부적응과의 관계에서는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 변인들에 관한 효과크기는 자료관련 조절변인인 논문형태, 발행연도, 성별과 이론관련 조절변인인 직업유무, 자원봉사참여유무, 복지서비스 수혜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와의 관련성, 연구의 시사점 및 제한점 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노인의 생활만족도, 적응관련 변인, 메타분석

* 이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1) 경상대학교 대학원 교육심리 및 교육상담, 박사과정

2) 교신저자 :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부교수 (E-mail: h1652@gnu.ac.kr)

I. 서 론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아주 빠른 진행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2016)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15년에 13.1%이고, 2020년 15.7%, 2025년에는 19.9%로 예상된다. 유소년 인구(0~14세)에 대한 노년층 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인 인구의 노령화 정도를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는 2015년 94.1%, 2020년 119.1%로, 2060년에는 394%로 높아진다고 한다. 또한 1955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에는 평균수명 84.8세로 더욱 심각한 노인문제와 사회적 욕구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 질환, 부양의 어려움, 자살 등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경제 불안과 함께 고독감,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과 인지기능의 저하 등 심리·사회적인 문제들을 초래한다(김인홍, 2000). 노년기에 경험하는 이와 같은 문제는 생활만족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삶의 질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노년기를 맞이하는 노인들에게 노후를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보낼 수 있는 여건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성공적인 노년기와 직결된다고 본다. 김명숙과 고종욱(2013)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건강 요인, 경제적 요인, 여가활동 요인, 사회적 지지 요인, 심리적 요인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생활만족도가 단순히 경제적인 안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의미와

목적을 포괄하는 주관적인 인식으로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더불어 미래의 삶과 활동의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노인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며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본다.

생활만족도라는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Neugarten(1968)에 따르면 생활만족도란 매일의 일상을 형성하는 활동들로부터 만족을 느끼며,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에 대해 의미와 책임감을 느끼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받아들이며, 긍정적 자아관을 가지고 자신을 가치있다고 여기는 낙천적인 태도와 감정을 지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임미숙(1985)도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조건 속에서 노인자신이 과거, 현재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만족감의 정도를 생활만족도로 보고 있다. 생활만족도에 대한 정의는 Kalish(1975)의 성공적인 노화와 그 의미가 일맥상통한다. Kalish(1975)는 성공적인 노화란 노년기 이전의 생활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주어진 상황을 기꺼이 수용하고, 이에 적응하여 생을 만족스럽고 행복하다고 느끼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가치와 자아개념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개념이라고 보고 있다. 즉, 성공적인 노화는 내적인 심리적인 기준과 더불어 외적인 사회적 기준도 가지는 것이다. 생활만족도와 성공적인 노화는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의 영위라는 점에서 그 목적이 같음을 알 수 있다.

노인들은 남아있는 생애에서 생활만족도를 높여 성공적인 노년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노인이 되면서 많은 문제들에 부딪히며 생활만족도가 떨어진다. 그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는 빠르고 다양하게 변하는 주변 환경이다. 이러한 환경들은 그들에게 따라가기 어려울 만큼 낮은 것들이다. 그러한 변화는 다양한 상실로 나타나며, 건강과 가족, 경제력과 사회적 역할 축소 등과 관련된다(강주령, 김명자, 1991; 박영민, 2011; 이종운, 김영숙, 2015; 정원숙, 2011). 노인들은 직장에서의 은퇴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타인과의 교류 단절, 급격하게 빨라진 정보화 사회로 인한 노인 계층의 정보 소외 문제, 인간과 인간사이의 친밀도 감소 등을 경험한다(김성희, 2008; 이호성, 2005). 또한 산업의 발전과 핵가족화의 경향으로 가족들과의 관계가 약화되어 세대 간에 단절로 인한 고립감, 상실감 등의 심리·사회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정보화 사회에서 오는 소외감이 가중되면서 노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한상미, 2011). 이와 같이 노인들은 사회적 적응이 빠르지 않아 내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자기방임 등의 형태로 문제가 표면화되기도 한다(김동배, 손의성, 2005). 자기방임의 경우 주변의 사람들이 문제로 인식하기 어렵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또한 젊은이들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최신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무지도 노인들의 소외감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내적, 외적으로부터 오는 많은 상실들은 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적응을 일으키며 이로 인해 심리·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고, 가지고 있던 다양한 경험과 자원을 상실하게 되어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 중에서 많은 연구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노인의 적응영역이다(고인순, 2008; 김성희, 2012; 김창수, 2013; 박성희, 이지연, 2006; 이종운, 김영숙, 2015; 이혜영, 2007; 최은진, 2008).

적응은 생활하면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대처행동(Nevid & Rathus, 2013), 주변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각 개인의 투쟁(Lazarus, 1976) 등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이 가족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개인이 환경과 잘 적응하면 긍정적인 발달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발달이 이루어진다. 또한 적응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일상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적이고 학습된 변화이기도 하다. 결국 적응은 자신이 살고 있는 현 상황에 존재하기 위한 적응 상태라고 볼 때(장진경, 2004) 노인들은 문제에 대한 대처나 적응이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떨어지고 자기유지 기능과 사회적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응상의 문제들이 발생할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상실감 등으로 자기 자신을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내몰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노인의 생애와 발달을 이해하고 노인들의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을 살펴보면 있어서 적응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강봉규, 2016). 노인들의 적응문제

를 살펴보는 것은 노인들이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사회에서 노인들을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노인의 적응관련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박선애, 허준수, 2013; 박성희, 이지연, 2006; 윤현희, 김명자, 1994). 이는 노인의 낮은 생활만족도가 사회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적응은 어떠하며, 부적응과 관련한 심리적인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였기 때문으로 본다.

그동안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연구되어 온 정적적응 관련변인들을 살펴보면 가족관계의 질(김명숙, 고종옥, 2013; 이현숙, 2009; 임진주, 2007), 스트레스 대처능력(고인순, 2008), 사회적 능력(김영기, 2007; 김향선, 2011; 김희순, 2008; 신창섭, 2009; 정원숙, 2011) 등 다양하다.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진 이유는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적응을 잘 해나가는지를 살펴보고 긍정적인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가에 관해서 이해함으로써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연구되어 온 부적적응 관련변인들을 살펴보면 강박증(서순이, 2010; 이혜영, 2007; 임진주, 2007), 스트레스(김성희, 2008), 우울(강난미, 정현희, 2014; 김준형, 2011; 김진행, 2006; 김창수, 2013; 서순이, 2010; 서정인, 2009; 이혜영, 2007), 절망감(고인순, 2008; 한상미, 2011), 죽음에 대한

불안(김성희, 2012; 김종협, 2006; 이우숙, 2008; 윤유식, 2009; 임진주, 2007) 등의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적응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진 이유는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노화로 인한 여러 부정적 요인들 중 어떤 요인들이 노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더 많이 방해하는지를 파악하여 대처하게 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노인의 적응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노인의 적응과 관련된 메타분석 연구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동안 이루어진 노인의 적응과 관련된 메타분석 연구들로는 노인의 자살생각 억제와 관련된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문동규, 2012),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의 성별 차이 메타분석(김여진, 임연옥, 2015),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변인들의 메타분석(신성일, 2012),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 관련 변인의 메타분석(강지애, 2015), 노인의 죽음불안과 관련된 변인들의 메타분석(김신향, 박경숙, 2016), 노인의 우울 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김동배, 손의성, 2005)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연구들에서는 노인의 적응관련 변인들을 자살생각, 주관적 안녕감, 우울, 불안 등의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연구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메타분석 연구들은 노인의 적응관련 변인들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뿐 노인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 신성일(2012), 강지애(2015)의 연구는 노인의 삶과 성공적 노화의 관련 변인으로 신체변인, 심리적 변인, 가정환경적 변인, 사회환경적 변

인으로 구분하여 연구하고 있지만 적응관련 변인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살펴볼 때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적응관련 변인들을 폭넓게 연구한 메타분석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노년의 적응이 어떠한가를 메타분석으로 살펴보는 연구는 노인의 현재 생활만족도와 노화과정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적응관련 변인들에 대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관련되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한 논문은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적응이 어떠한가를 정리하는 것은 노인들의 생활만족은 어떠한가에 이어서 이들의 내적인 적응상태는 어떠한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 변인들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메타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와 정적, 부적적응은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노인의 적응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정적, 부적적응간 관련성에 관한 전체효과크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정적, 부

적적응간 관련성에 관한 효과크기는 자료관련 조절변인(논문형태, 발행연도, 성별)과 이론관련 조절변인(직업, 자원봉사참여, 복지서비스수혜)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논문의 선정과정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발행된 논문을 자료로 수집하였다. 주요검색어는 「노인」, 「생활만족도」, 「적응」, 「노인 생활만족도」, 「노인 적응」 등이며 검색은 대학도서관의 국내 데이터베이스인 원문정보시스템(KISS), 국내학회지(DBPIA),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국회도서관 등을 활용하였다.

논문의 선정과정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심리·사회적 적응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 논문을 검토하고 연구결과들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록과 제목을 바탕으로 학위논문 140편, 학술지논문 169편으로 총 309편의 연구물을 선별하였다. 이 중 관련변인 부재 연구 92편, 상관계수 등 효과크기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통계적 자료 부재 연구 113편 등은 제외하였고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이 중복된 경우 학위논문을 선택하였으며 중복된 학술지논문 2편은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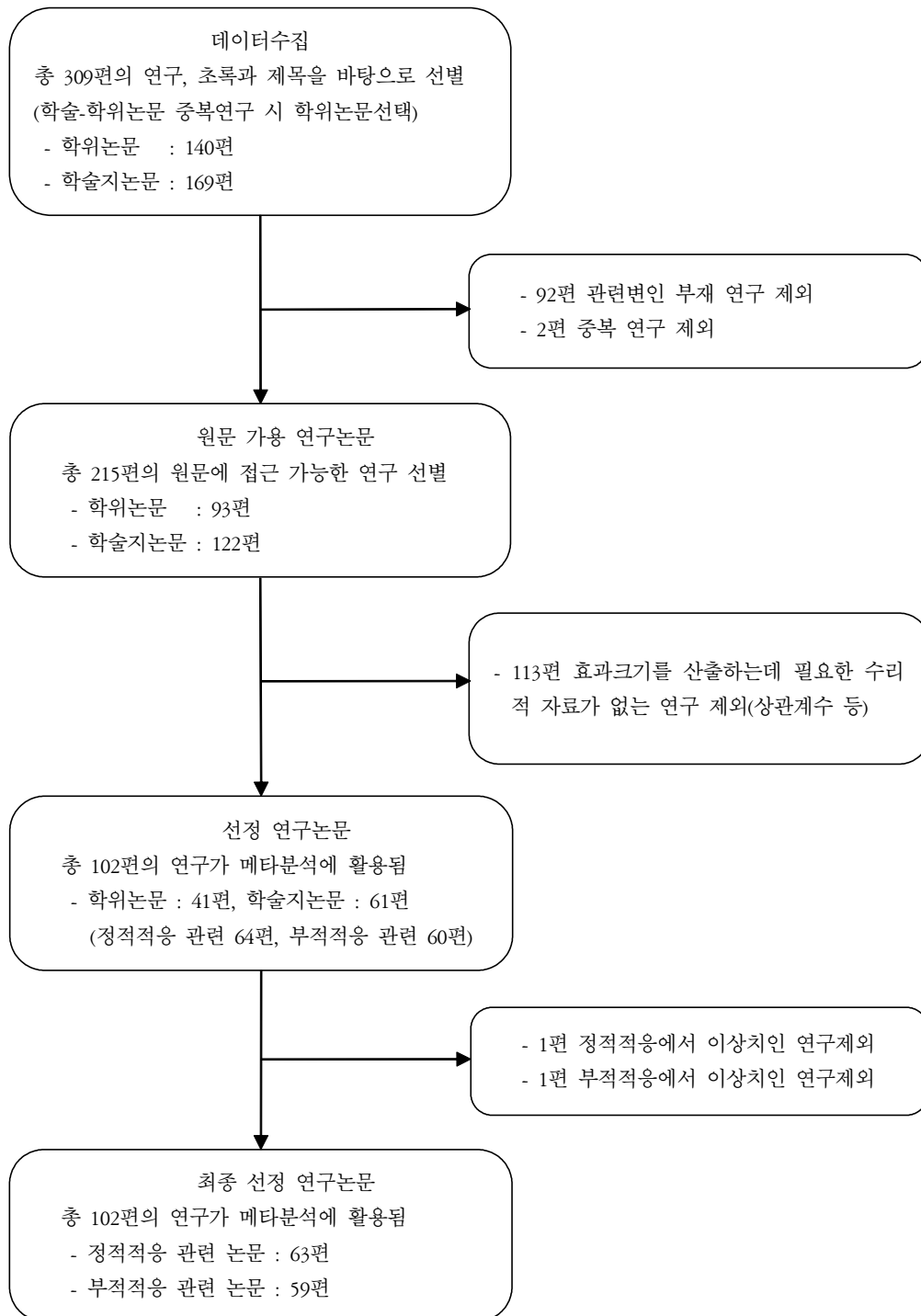


그림 1. 메타분석을 위한 논문 선정 과정

또한 분석단계에서 개별적응변인에 따라 발견된 이상치 연구 2편을 제외하여 최종 선정 논문은 학위논문 41편, 학술지논문 61편의 전체 102편이다. 메타분석을 위한 논문 선정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2. 코딩절차와 변인설정

코딩절차

본 연구에서는 Lipsey와 Wilson(2001), Cooper(2010)의 도구개발 기준을 참고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개발되었으며 표 1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코딩하였다.

종속변인

본 연구에서 노인의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변인들을 살펴본 결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고 있었다. 하나는 정적적응 관련 변인으로 가족관계의 질, 스트레스 대처능력, 사회적 능력 등이다. 다른 하나는 부적적응 관련 변인들로 정신증, 스트레스, 우울, 절망감, 죽음과 불안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정적적응과 부적적응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러한 분류는 메타분석에서 이론적이고 방법적인 이점을 갖고 있다(Cooper, 2010). 하지만 이에 대한 단점으로는 개별적인 적응변인들의 효과크기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응을 정적적응과 부적적응의 전체적인 효과크기와 개별적인 적응변인들의 효과크기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심리학 핸드북과 적응관련 연구들(김미점, 조한익, 2015; Linley & Joseph, 2004; Lopez & Snyder, 2003; Snyder & Lopez, 2002, 2007)을 바탕으로 교육과 상담영역의 전문가들, 교육학 박사과정 학생들과 더불어 노인의 정적적응과 부적적응에 속하는 변인들을 표 2와 같이 분류하였다.

조절변인

조절변인은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하였다. 한 가지는 메타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 데이터와 관련하여 설정하게 되는 조절변인들이고 다른 하나는 노인연구와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중요한 변인들이라고 판단하여 설정한 조절변인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조절변인들을 자료관련 조절변인과 이론관련 조절변인으로 구분하였다.

표 1. 코딩양식

구분	내용
논문관련 종속변인	1. 논문관련사항 # 일련번호
	# 논문제목, 저자명, 출처, 발표년도
	2. 결과 값에 관한 정보 # 효과크기: 사례수와 상관계수(효과크기를 구할 수 있는 정보)
자료관련 조절변인	① 논문형태: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② 발행연도: 2005~2010년 /2011~2015년
	③ 성별: 남자/여자
이론관련 조절변인	① 직업: 있음/없음
	② 자원봉사 참여: 참여/비참여
	③ 복지서비스 수혜방법: 시설입소/ 재가서비스/프로그램 직접 참여

표 2. 적응관련 변인들의 분류

	정 적 적 응		부 적 적 응
가족관계의 질	가족지지, 가족관계, 가족기능, 가족응집력, 가족유대, 가족환경, 자녀관계, 부부관계 등	정신증	강박증, 정신증, 편집증, 공포, 대인예민, 불안, 긴장, 적대감, 분노 등
스트레스 대처능력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대처 등	스트레스	상실, 일상, 경제, 가족스트레스 등
사회적 능력	대인관계, 개방적 태도, 이웃, 사교, 대인·친구·사회지지, 소속감, 외향성, 참여적극성, 이해, 인정 등	우울	우울, 덧없음, 뒤처짐, 밀려남, 받아들여지지 않음, 고독감, 고립감, 외로움, 소외감, 심리적 위축, 피로, 혼란 등
		절망감	절망감, 무망감, 자살 의향성, 상실감, 인지적 몰락, 자기도파 등
		죽음불안	죽음불안, 죽음불안태도 등

자료관련 조절변인. 자료관련 조절변인들은 논문형태, 발행연도, 성별 등으로 이러한 조절변인들을 설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논문형태인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에 따라서 노인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변인의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의 효과크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았다. 일반적으로 메타분석에서 논문형태에 따라서 학위논문과 학술지를 구분하는 이유는 학위논문 또는 학술지논문 중 어느 하나의 영역만을 대상으로 연구하게 되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들 때문이다(Cooper, 2010; Rosenthal, 1979).

둘째, 발행연도에 따라서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 변인들의 효과크기는 다를 것으로 보았다. 과거에는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세상이 천천히 변화하였는데 지금은 해마다 첨단기술들이 변하고 있으며 고학력자들의 노령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연구에서

두 시기로 구분한 것은 두 시기의 노인연구들에서 사고방식, 노년을 준비하는 태도, 경제적인 측면 등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이유로 발행연도를 조절변인으로 고려하였다.

셋째, 성별에 따라서도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 변인들의 효과크기는 달라질 것으로 보았다. 남자들은 가장이라는 위치에서 가정을 위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직장을 다닌 경우가 많았고 여자들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보살피고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남자들은 은퇴 이후 어울려 지내던 동료들과의 단절,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본다. 이규은(2013)은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다른 조건에 놓여있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서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인들이 다르다고 보고 있으며 김여진과 임연옥(2015)의 연구에서도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은 성별에 따른 효과크기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 변인들의 효과는 다를 것으로 판단되어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성별 관련 조절변인에서 대부분의 노인 연구들은 남자와 여자 노인들을 모두 포함하여 연구한 논문들이 대부분이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성별로 분류된 노인들만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이론관련 조절변인. 노인연구와 관련하여 직업, 자원봉사, 복지서비스 수혜 등이 메타분석에서 중요한 변인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조절변인들을 설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에 따라서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 변인들의 효과크기는 달라질 것으로 보았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들은 직업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지 않고 있겠지만 경제력이 어려운 경우에 직장을 계속 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윤순덕, 한경혜, 2004). 따라서 직업의 유무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적응을 달리할 것으로 보고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직업에 따른 조절변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직업이 나타나지 않은 연구들을 제외하고 직업유무를 알 수 있는 노인연구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자원봉사에 따라서도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 변인들의 효과크기는 달라질 것으로 보았다. 남에게 베풀며 살아가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본 것이다(김향선, 2011; 박순미, 2010). 따

라서 자원봉사유무를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여 효과크기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셋째, 복지서비스 수혜방법에 따라서도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 변인들의 효과크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았다(김준형, 2011; 배주한, 이혜경, 김한수, 오현주, 2008; 서순이, 2010). 복지서비스 수혜방법으로는 시설입소, 재가서비스 이용, 프로그램 직접 참여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기 다른 노인복지서비스 수혜방법들에 따라서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 변인들의 효과크기가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노인 복지를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좋은지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3. 자료입력과 메타분석의 기본 가정 검토

연구자료의 입력과 의존성: 분석단위 이동

본 연구에서는 전체효과크기와 조절변인에 따른 효과크기를 다르게 분석하고자 하였다(Cooper, 2010). 전체효과크기의 분석은 분석단위의 형태를 연구단위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한 연구에서 나온 효과크기들은 하나의 효과크기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단위 분석에 따른 것이다(Cooper, 2010; Lipsey & Wilson, 2001).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 신체적 생활만족-공동체정신/ 사회적 생활만족-공동체정신/ 교육적 생활만족-공동체정신의 3개의 효과크기가 만들어지며(김용숙, 2013) 전체 102편의 연구에서 281개의 효과크기가 나타난다. 이렇게 분석하게 되면 효과크기 간에 상호의존성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석단위의 효과크기를 하

나의 효과크기로 통합하여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조절변인에 따른 효과크기에서는 하위효과크기들을 모두 고려하여 연구단위가 아닌 효과크기단위로 이동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상치 검토 이전의 전체효과크기는 생활만족도-정적적응 64편, 생활만족도-부적적응 60편이며 조절변인에 따른 효과크기는 생활만족도-정적적응 144개의 효과크기, 생활만족도-부적적응 137개의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연구자료에서 이상치 검토

분석 이전에 연구 자료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자료의 이상치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관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상관분석에서 이상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Fisher의 Z계수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Fisher의 Z계수를 통해 산출된 효과크기는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로 변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02편의 연구에서 나타난 Fisher의 Z값을 가지고 사분위값을 바탕으로 이상치를 검토하였다. 이상치는 데이터의 범위에서 많이 벗어난 아주 작은 값이나 아주 큰 값을 말하며 이상치의 검토는 일반적으로 전체효과크기를 가지고 사분위수 값을 구한 이후 3사분위수에서 1사분위수를 뺀 사분위수 범위 값을 구하여 1사분위수에서 1.5*사분위수 범위 값을 빼고, 3사분위수에서 1.5*사분위수 범위 값을 더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김달호 등, 2008, 조은실, 김영숙, 조한익, 2014). 이상치를 구하는 통계적인 값을 적용하면 Fisher의 Z값에 대한 정상범위는 생활만족도-정적적응에서는 -.13~.97, 생활만족도-부적적응에서는 -.172~

.93의 값이 나온다. 이 값을 Fisher의 Z값에 적용하면 생활만족도-정적적응에서는 김종수(2007)의 연구(Fisher의 $Z = -.19$), 생활만족도-부적적응에서는 김창수(2013)의 연구(Fisher의 $Z = -2.08$)가 이상치로 나타나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심리·사회적 적응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102편의 연구논문에서 생활만족도-정적적응 관련변인 63편, 생활만족도-부적적응 관련변인 59편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책상서랍과 출판편의 문제

메타분석에서 책상서랍과 출판편의의 문제가 있는 경우 전체효과크기가 작게 또는 크게 추정되어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다(Borenstein, Hedges, Higgins, & Rothstein, 2009; Rosenthal, 1979). 본 연구에서는 전체효과크기를 분석하기 전에 연구자료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연구결과를 책상서랍에 넣어 두어 나타날 수 있는 책상서랍의 문제(Rosenthal, 1979)와 표집된 연구들이 좌우대칭이 되지 않아 나타날 수 있는 출판편의(Borenstein et al., 2009)를 검토하였다. 책상서랍의 문제는 Rosenthal과 Orwin의 Fail-safe N 방법을 사용하였고 출판편의의 문제는 Egger의 절편검증, Duval과 Tweedie의 Trim and Fill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책상서랍의 문제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정적적응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책상서랍의 문제를 검토한 결과 Rosenthal의 Fail-safe N에서 Z값이 0이 되기 위한 연구 수는 1443개로 나타났다. Orwin의 Fail-safe N에서도 이 값이 무의미한 값인 .10으로 낮아지기

표 3.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 변인의 메타분석에서 책상서랍의 문제 검토

변인	K	Rosenthal Fail-Safe N		Orwin Fail-Safe N		Egger's Intercept	
		Z-value	결측 연구수	Fisher Z	준거	결측 연구수	Intercept p-value
생활만족도- 정적적응	63	56.04	1443	.43	.10	207	-.60 .52
생활만족도- 부적적응	59	-41.31	6150	-.25	-.10	88	-7.69 .00

위해서는 207개의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효과크기가 책상서랍의 문제없이 안정적인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Egger의 절편검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출판편의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I = -.60, p > .05$). 부적적응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는 Rosenthal의 Fail-safe N에서 Z값이 0이 되기 위한 연구 수는 6150개로 나타났다. Orwin의 Fail-safe N에서도 이 값이 무의미한 값인 $-.10$ 으로 낮아지기 위해서는 88개의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책상 서랍의 문제없이 안정적인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하지만 Egger의 절편검증에서는 절편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출판편의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I = -7.69, p < .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출판편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Duval과 Tweedie의 Trim and Fill의 방법으로 효과크기 분포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본 연구에서 그림 2를 보면 표준오차가 큰 연구들이 선택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메타분석에서 사용된 논문들이 안정되어 있으며 작은 연구들이 편의를 일으킨다

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다. Trim-and-fill 방법에서는 funnel plot에서 비대칭을 보이는 경우 대칭으로 교정하기 위해 누락되었다고 가정된 연구를 포함시켜 상대위험도를 다시 계산한다. 이 방법은 출판편의가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는 가장 권장되는 방법이다 (Borenstein et al., 2009). 그림 2에서 ◇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물에 대한 평균 효과크기이며 ◆는 삽입된(imputed) 평균 효과크기를 나타낸다. 그림 2를 살펴보았을 때 생활만족도-정적적응의 출판편의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생활만족도-부적적응의 출판편의 가능성은 클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 변인들의 관계에서 빠진 것으로 추정되는 효과크기 값들을 삽입하고 이를 고려하여 효과크기를 산출함으로써 출판편의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누락된 연구들을 포함시켰을 경우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 달라지는가를 검증하는 민감성 분석과도 관련된다 (황성동, 2014; Borenstein et al.,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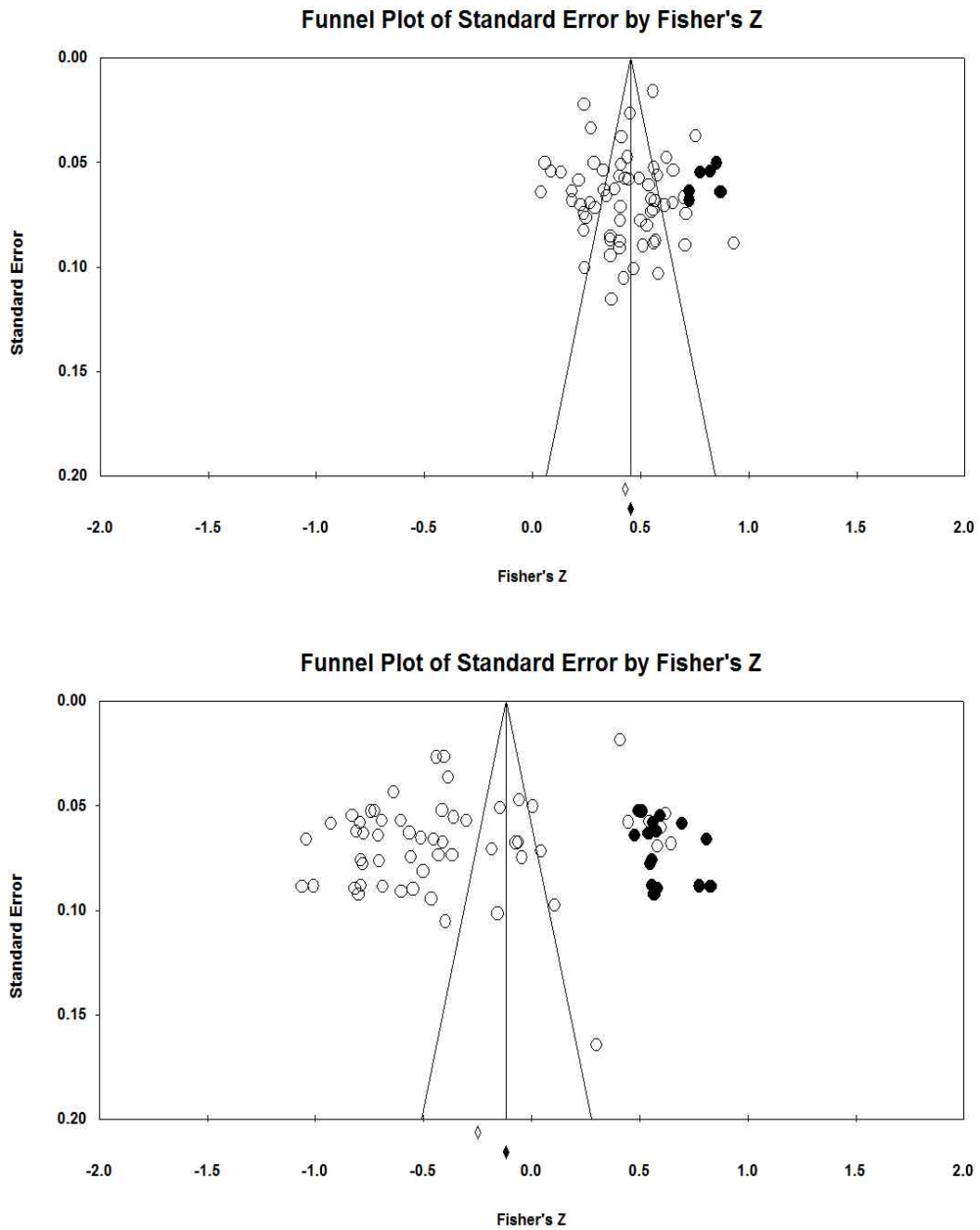


그림 2. 생활만족도와 정적, 부정적응의 관계에 관한 효과크기분포

주. (위) 생활만족도와 정적적응의 관계에 관한 효과크기 분포. (아래) 생활만족도와 부정적응의 관계에 관한 효과크기 분포.

III. 결과 및 해석

1.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 변인의 관계에 관한 전체효과크기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 변인의 관계는 전체효과크기와 개별 적응관련 변인들의 전체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 변인의 전체효과크기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 변인의 관계에 관한 전체 효과크기는 표 4와 같다. 생활만족도와 정적적응의 관계에 관한 전체효과크기는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Q = 665.09, p < .01$). 이는 노인연구의 조건이나 상황이 달라서 생긴 것으로 판단되어 무선효과모형을 사용하여 효과크기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효과크기는 $.42(CI = .37 \sim .47, r = .40)$ 로 나타났다. 하지만 출판편의를 고려하여 무선효과모형에서 삽입된 효과크기를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 $.46(r = .43)$ 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칭을 이루는 논문들을 더 찾을 경우 원래의 효과크

기인 $.42(r = .40)$ 보다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적적응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전체효과크기 또한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나 동일한 모집단에서 추출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Q = 4221.02, p < .01$). 따라서 무선효과모형을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효과크기는 $-.36(CI = -.49 \sim -.24, r = -.35)$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삽입된 효과크기를 고려하여 계산한 결과 효과크기는 $-.16(r = -.16)$ 으로 나타나 원래의 효과크기 $-.36(r = -.35)$ 보다 강도가 작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개별적응변인들의 전체효과크기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정적, 부적 개별적응 변인들과의 전체효과크기는 표 5와 같다.

정적적응 관련 변인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전체효과크기에서 가족관계의 질($Q = 223.93, p < .01$)과 사회적 능력($Q = 1558.14, p < .01$)의 효과크기는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연구의 조건이나 상황이 달라서 생긴 것으로 판단되었다. 무선효과모형을 사용하여 효과크기를 계산한 결과 가족관계의

표 4.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 변인의 관계에 관한 전체효과크기

변인	K	Fixed ES	이질성 (Q)	Random ES			
				-95% CI	ES(r)	95% CI	Imputed ES(r)*
생활만족도 -정적적응	63	.43 (.40)	665.09**	.37	.42 (.40)	.47	.46 (.43)
생활만족도 -부적적응	59	-.25 (-.24)	4221.02**	-.49	-.36 (-.35)	-.24	-.16 (-.16)

주. *Imputed ES(r)은 삽입된 Fisher의 Z효과크기와 상관계수임.

** $p < .01$.

표 5. 생활만족도와 개별적응 관련변인의 관계에 관한 전체효과크기

생활만족도-개별적응변인		K	Fixed ES	이질성 (Q)	Random ES			
					-95% CI	ES(r)	95% CI	Imputed ES(r)*
정적 적응 변인	가족관계의 질	40	.43(.41)	223.93**	.38	.42(.40)	.47	.42(.40)
	스트레스 대처능력	3	.36(.35)	1.03	.28	.36(.35)	.45	.36(.35)
	사회적 능력	100	.40(.38)	1558.14**	.34	.38(.37)	.43	.44(.41)
부적 적응 변인	정신증	36	-.46(-.43)	307.01**	-.51	-.45(-.42)	-.38	-.37(-.36)
	스트레스	7	-.49(-.46)	48.02**	-.62	-.48(-.44)	-.34	-.56(-.51)
	우울	80	-.10(-.10)	8574.13**	-.49	-.37(-.36)	-.26	.03(.03)
	절망감	3	-.17(-.17)	233.46**	-.90	-.18(-.18)	.54	-.18(-.18)
	죽음불안	10	-.05(-.05)	79.11**	-.19	-.05(-.05)	.08	-.05(-.05)

주. *Imputed ES(r)은 삽입된 Fisher의 Z효과크기와 상관계수.

** $p < .01$.

질은 .42(CI = .38~.47, $r = .40$), 사회적 능력은 .38(CI = .32~.43, $r = .37$)로 나타났다. 반면 스트레스 대처능력의 효과크기는 동질적인 것으로 나타나($Q = 1.035$, $p > .05$) 동일한 모집단에서 추출된 것으로 보고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여 효과크기를 계산한 결과 .36(CI = .28~.45, $r = .35$)으로 나타났다. 출판편의를 고려하여 삽입된 효과크기를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 가족관계의 질은 .42($r = .40$)로, 스트레스 대처능력은 .36($r = .35$)으로 삽입전의 효과크기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적 능력의 삽입된 효과크기를 고려하여 계산한 효과크기는 .44($r = .41$)로 나타나 대칭을 이루는 논문들을 더 찾을 경우 원래의 효과크기인 .38($r = .37$)보다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적적응 관련 변인인 정신증($Q = 3071.01$, $p < .01$), 스트레스($Q = 48.02$, $p < .01$), 우울($Q = 8574.13$, $p < .01$), 절망감($Q = 233.46$, $p < .01$), 죽음불안($Q = 79.11$,

$p < .01$)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전체효과크기는 모두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나 무선효과모형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그 결과 효과크기는 정신증 -.45(CI = -.51~-.38, $r = -.42$), 스트레스 -.48(CI = -.62~-.34, $r = -.44$), 우울 -.37(CI = -.49~-.26, $r = -.36$), 절망감 -.18(CI = -.90~.54, $r = -.18$), 죽음불안 -.05(CI = -.19~.08, $r = -.05$)로 나타났다. 하지만 삽입된 효과크기를 고려하여 효과크기를 계산한 결과 정신증 -.37($r = -.36$), 스트레스 -.56($r = -.51$), 우울 .03($r = .03$)으로 나타나 정신증(ES = -.45, $r = -.42$)과 우울(ES = -.37, $r = -.36$)은 원래의 효과크기보다 강도가 작아질 수 있음을, 스트레스(ES = -.48, $r = -.44$)는 원래의 효과크기보다 강도가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절망감과 죽음불안의 삽입된 효과크기는 -.18($r = -.18$), -.05($r = -.05$)로 삽입전의 효과크기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절변인에 따른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 변인의 효과크기 분석

본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 변인의 관계에 관한 전체효과크기가 이질적인 것

으로 나타나 이러한 이질성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조절변인인 논문형태, 발행연도, 성별, 직업유무, 자원봉사 참여 유무, 복지서비스 수혜방법, 개별적응 유형 등에 따라 효과크기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6. 생활만족도와 정적적응의 관계에 관한 조절효과

조절변인	하위범주	K	ES(<i>r</i>)	ES(<i>r</i>)의 95% CI	효과크기이질성		
					Q	df	p
논문형태	학위논문	68	.40(.38)	.39~.42 (.37~.39)	.04	1	.83
	학술지논문	75	.40(.38)	.39~.41 (.37~.39)			
발행연도	2005~2010	67	.31(.30)	.30~.33 (.29~.31)	215.21	1	.00
	2011~2015	76	.46(.43)	.45~.47 (.42~.44)			
성별	남	7	.37(.35)	.32~.42 (.31~.39)	6.79	1	.00
	여	9	.46(.43)	.41~.50 (.39~.46)			
직업	유	8	.20(.20)	.17~.23 (.17~.23)	14.76	1	.00
	무	21	.30(.29)	.26~.34 (.25~.32)			
자원봉사	참여	14	.29(.29)	.26~.32 (.26~.31)	6.25	1	.01
	비참여	20	.36(.34)	.32~.39 (.31~.37)			
복지서비스 수혜방법	시설입소	16	.33(.32)	.29~.37 (.28~.36)	25.04	2	.00
	재가서비스 이용	5	.54(.49)	.47~.61 (.43~.45)			
	프로그램 직접 참여	14	.42(.39)	.39~.45 (.37~.42)			

주. ES(*r*)은 Fisher의 Z계수와 상관계수.

조절변인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를 검토하는 방법으로는 고정효과모형과 무선효과모형 또는 이 두 방법을 혼합한 혼합효과모형으로 분석할 수 있다. 고정효과모형은 분산원이 조절변인과 관련하여 체계적이라고 보는 것이고 무선효과모형은 분산원이 조절변인 이외에도 연구 간에 발생하는 분산원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이며, 혼합효과모형은 분산원의 일부는 체계적으로 일부는 무선성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Borenstein et al., 2009; Lipsey & Wilson, 2001).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발달과 특성이 크게 다르지 않고 전체효과크기의 이질적인 분포가 연구논문들의 특성과 조절변인 등 분산의 출처에 대한 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절변인에 따른 정적적응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효과크기의 차이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정적적응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효과크기는 논문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Q_b = .04, p > .05$). 발행연도에 따라서는 정적적응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효과크기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Q_b = 215.26, p < .05$) 2011~2015년에 발행된 논문($ES = .46, r = .43$)이 2005~2010년에 발행된 논문($ES = .31, r = .30$)보다 효과크기의 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적적응과 생활만족도는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Q_b = 6.97, p < .05$) 남자($ES = .37, r = .35$)보다 여자($ES = .46, r = .43$)의 효과크기 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유무에 따라서도 효과크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Q_b = 14.76, p < .05$) 효과크기는 직업이

있는 노인($ES = .20, r = .20$)보다 직업이 없는 노인($ES = .30, r = .29$)의 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 참여 유무에 따라서 정적적응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효과크기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Q_b = 6.25, p < .05$)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ES = .29, r = .29$)보다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ES = .36, r = .34$)의 효과크기 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적적응과 생활만족도의 효과크기는 복지서비스 수혜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Q_b = 25.04, p < .05$). 효과크기는 재가서비스 이용 노인($ES = .54, r = .49$), 프로그램 직접 참여 노인($ES = .42, r = .39$), 시설입소 노인($ES = .33, r = .32$) 순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인에 따른 부적적응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효과크기의 차이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부적적응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효과크기는 논문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Q_b = 866.60, p < .05$) 학위논문($ES = -.45, r = -.43$)이 학술지논문($ES = -.11, r = -.11$)의 효과크기 강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연도에 따라서도 부적적응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효과크기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Q_b = 1523.96, p < .05$) 2011~2015년에 발행된 논문($ES = -.49, r = -.45$)이 2005~2010년에 발행된 논문($ES = -.07, r = -.07$)보다 효과크기 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적응과 생활만족도는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Q_b = 10.22, p < .05$) 남자($ES = -.88, r = -.70$)가 여자($ES = -.73, r = -.62$)보다 효과크기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서비스 수혜방법에

표 7. 생활만족도와 부적적응의 관계에 관한 조절효과 분석

조절변인	하위범주	K	ES(<i>r</i>)	ES(<i>r</i>)의 95% CI	효과크기이질성		
					Q	df	p
논문형태	학위논문	45	-.45(-.43)	-.48~- .43 (-.44~- .41)	866.60	1	.00
	학술지논문	91	-.11(-.11)	-.12~- .10 (-.12~- .10)			
발행연도	2005~2010	96	-.07(-.07)	-.08~- .06 (-.08~- .06)	1523.96	1	.00
	2011~2015	40	-.49(-.45)	-.51~- .47 (-.47~- .44)			
성별	남	2	-.88(-.70)	-.96~- .79 (-.74~- .66)	10.22	1	.00
	여	17	-.73(-.62)	-.76~- .70 (-.64~- .60)			
복지서비스 수혜방법	시설입소	9	-.12(-.12)	-.17~- .07 (-.16~- .07)	98.06	2	.00
	재가서비스 이용	10	-.41(-.39)	-.45~- .37 (-.42~- .35)			
	프로그램 직접 참여	43	-.35(-.34)	-.37~- .33 (-.36~- .32)			

주. ES(*r*)은 Fisher의 Z계수(상관계수). 자원봉사 조절변인은 참여의 연구수가 작아 분석에서 제외함.

따라서도 부적적응과 생활만족도의 효과크기 강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Q_b = 98.06, p < .05$). 효과크기는 재가서비스 이용 노인($ES = -.41, r = -.39$), 프로그램 직접 참여 노인($ES = -.35, r = -.34$), 시설입소 노인($ES = -.12, r = -.12$) 순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 변인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논문들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서 발행된 학위논문 41편, 학술지논문 61편 총 102편으로 두 변인 간의 상관계수는 Fisher의 Z계수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측정도구들을 분석하였다. 생활만족도의 측정도구들은 최성재(1986)가 개발한 생활만족도 척도, Krause(2004)의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노인의 생활만족도

척도, 신체적, 사회적, 교육적 영역으로 구분한 생활만족도 척도(김용숙, 2013), Stomes와 Kozma를 바탕으로 윤진(1982)이 개발한 생활만족도 척도, 정적정서와 주관적 안녕감, 부정적 자아상과 부정적정서, 자기가치 등으로 구성된 최혜지와 이영분(2006)의 생활만족도 척도,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의 안녕감과 관련된 생활만족도 척도 등 다양하다. 이처럼 여러 척도들이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고 있어서 측정도구에 대한 분류가 어려워 조절변인으로 생활만족도 척도를 고려하지 않았다. 생활만족도의 효과크기 입력에서 하위요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하위요인의 상관계수를 입력하였고 생활만족도 전체로 나타난 자료는 전체상관계수를 입력하였다. 이는 전체효과크기는 연구단위로 묶어 계산하고 조절변인들의 효과크기는 효과크기 단위로 이동하여 조절변인별로 차이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분석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Cooper, 2010).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적응관련 변인들은 심리·사회적 적응들에 초점을 두었다. 메타분석을 위한 초기 표에서는 심리·사회적 적응을 신체적 영역, 동기적 영역, 심리·사회적 영역으로 나누었는데 이 중에서 신체적 영역인 건강상태, 일상생활 등과 동기적 영역인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희망 등은 심리·사회적 적응변인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정리하였을 뿐 연구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심리·사회적 적응에서는 노인의 적응(강봉규, 2016), 심리학에서의 적응관련 문헌(김인자, 1992; 오경자, 강성록, 양재원, 이주은, 2016; Atwater, 1991), 긍정심리학의 핸드북(Linley & Joseph,

2004; Lopez & Snyder, 2003; Snyder & Lopez, 2002, 2007)을 참고로 하여 적응관련 변인들을 긍정적 변인들과 부정적 변인들로 구분하였다. 적응관련 변인들 중에서 삶의 질과 관련되는 하위변인들은 긍정적 미래관, 자기긍정, 자기수용, 삶의 질, 성공적 노화, 만족감, 적극적인 인생참여, 자아통합감, 자아실현, 성취감, 자긍심 등으로 나누었으나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겹치는 변인들이 많아서 삶의 질과 관련된 변인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안녕감과 관련된 하위변인들도 영적 안녕감, 심리적 건강, 심리적 안정, 자긍심, 정서적 만족, 정신건강 등으로 분류하였으나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안녕감 척도를 사용한 논문들(서선희, 조미숙, 김유리, 안지윤, 2013; 이묘숙, 2010)로 인해서 안녕감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정적적응에서 적응관련 변인들은 가족관계의 질, 스트레스 대처능력, 사회적 능력으로, 부정적응에서 적응관련 변인들은 정신증, 스트레스, 우울, 절망감, 죽음불안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연구한 노인의 적응관련 변인들의 연구를 하나씩 검토하면서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적응관련 변인들의 상관값을 정리하고 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효과크기를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 변인들의 분석에 앞서 책상서랍의 문제와 출판편의 검증을 하였다. 책상서랍의 문제는 Rosenthal과 Orwin의 Fail-safe N 검증을 실시하였고 출판편의 문제는 Egger의 절편검증, Duval과 Tweedie의 Trim and Fill 방법을 사용하였다.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 변인들에 관한 책상서랍의 문제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gger의 검증에서 노인의 생활만족도-정적적응은 출판편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인의 생활만족도-부적적응은 출판편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Trim and Fill의 방법으로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 변인들의 효과크기에서 빠진 것으로 추정되는 연구들의 효과크기 값들을 삽입하고 이를 고려하여 효과크기를 산출함으로써 출판편의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해석을 하고자 하였다.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전체효과크기는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나 무선평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생활만족도와 정적적응의 효과크기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만족도-부적적응은 중간정도의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이는 Lipsey와 Wilson (2001)이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에 의한 효과크기가 .10보다 작으면 낮은효과크기, .25정도이면 중간효과크기, .40 이상이면 높은 효과크기로 분류한데 따른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자아통합감, 가족기능과 정적인 관계가 있지만 사회적, 고립감, 우울 등과는 부적적인 관계가 있다는 연구(이종운, 김영숙, 2015), 생활만족도는 노인의 사회적 지지를 높이고 무력감을 낮춘다는 연구(박성희, 이지연, 2006), 생활만족도는 노화과정에서 중요한 것으로 생활만족도가 안녕감이나 자아실현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다는 연구(Radecki, 1990),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사회적 활동의 수준, 이웃과의 교류 등 사회적인 교류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Pollack & Glan, 1993) 등 여러 연구에서 나온 결과가 메타분석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정적인 개별적응변인들의 전체효과크기는 가족관계의 질, 사회적 능력, 스트레스 대처능력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공적인 노화와 관련된 변인들의 메타분석을 실시한 강지애(2015), 노인의 삶의 질의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신성일(2012)의 연구 결과와 같은 효과크기의 강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족관계에서 자녀와의 접촉이 빈번할수록 성공적 노화의 비율이 높으며, 자녀와의 관계 및 접촉빈도가 신체적 기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윤현숙, 유희정, 2007)와 일치한다. 또한 노인들은 심리적, 신체적 노화로 인한 활동 감소와 경제적 문제로 인해 사회적 소외감 등으로 모든 면에서 소극적 자세를 갖게 된다. 이러한 심리상태가 가족이나 사회적 지지로 인해 긍정적으로 바뀌므로 회복탄력성과 삶에 대한 동기를 높이므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부적인 개별적응 변인들 간에 효과크기에서는 스트레스, 정신증이 가장 높고, 우울, 절망감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고 죽음불안의 효과크기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강지애(2015)의 연구를 살펴보면 스트레스 $ES = -.38$, 우울 $ES = -.27$ 로 나타나 본 연구와 동일하게 부적으로 높은 효과크기를 보인다. 결국 우울과 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의 질적 저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정신증에 대한 효과크기도 높게 나타났으며, 권인선(2006)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망감은 미래 세상에 대한 어떤 기대도 할 수 없고 기대와 희망을 모두 버리는 심리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 절망감은 부적

으로 중간정도의 효과크기를 보이고 있으며, 안효찬(2010)의 연구에서도 절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우울을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김신향과 박경숙(2016)은 한국노인의 죽음불안은 경제적인 조건과의 효과크기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효과크기보다는 높지만 모두 낮은 효과크기를 보이는 공통점이 있다. 전반적으로 노인들은 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 주변 환경의 부조화 상태를 겪고, 노인으로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우울감과 자살사고에 노출되어 일상생활에 부적응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와 정적적응의 관계에 관한 효과크기들을 조절변인들에 따라서 분석한 결과 발행연도, 성별, 직업유무, 자원봉사 참여유무, 복지서비스 수혜방법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연도에 따라서 정적적응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효과크기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2015년에 발행된 논문이 2005~2010년에 발행된 논문보다 효과크기의 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문명의 발달과 시대 상황의 변화, 노인의 경제적인 능력 차이의 변화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경제적인 여유로움과 심리·사회적인 적응을 잘하는 노인들은 갈수록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정적적응간의 관계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적적응이 높게 나타났으나 남자의 정적효과크기는 여자보다 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되는 주관적 안녕감의 메타분석에서는 남자의 주관적

안녕감이 여자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문동규, 2012).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이와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아직 연구 수가 작아서 생긴 것으로 추가적인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직업유무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직업이 없는 노인이 효과크기 강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직업이 없는 노인들의 경우 경제적인 여유와 더불어 생활만족이 높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노인이 되어서도 가정과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으로 본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유무에 의한 효과크기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인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사회일선에서 물러나 자칫하면 상실되기 쉬운 자신의 사회적 가치성을 회복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꼭 사회참여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본다. 복지서비스 수혜방법에서는 재가서비스 이용, 프로그램 직접참여, 시설입소의 순으로 강도가 다르게 이는 노인들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고 낯선 장소보다는 집에서 관련 서비스를 받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효과크기의 강도가 가장 높았다고 판단된다.

생활만족도와 부정적응의 관계에 관한 효과크기들을 조절변인들에 따라서 분석한 결과는 논문형태, 발행연도, 성별, 복지서비스 수혜방법 등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학위논문들은 학술지 논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부정 효과크기의 강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학위논문들의

경우 데이터의 수집에서 구조화하고 체계화하는 면이 부족하고 데이터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되지만 구체적인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발행연도에 따라서 부적적응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효과크기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2015년에 발행된 논문이 2005~2010년에 발행된 논문보다 부적인 효과크기의 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에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생활만족도와 부적적응의 강도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부적적응간의 관계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 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 부적적응이 높게 나타났으나 부적효과크기는 여자보다 남자의 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김동배와 손의성(2005)의 메타분석 결과에서는 노인의 우울정도가 여자보다 남자일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들 메타분석들을 정리하면 남자노인들은 생활만족도가 높고 우울이 낮으며 여자 노인들은 생활만족도가 낮고 우울이 높은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이와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부적적응의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에서 성별과 관련된 정보가 누락된 연구들이 많아 연구수가 작아서 나타난 결과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성별과 관련된 메타분석도 추후 계속적인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복지서비스 수혜방법에 따라서도 생활만족도와 부적적응의 관계에 관한 효과크기의 강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서비스 이용, 프로그램 직접 참여 노인, 시설입소 노인 순으로 효과

크기의 강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시설 노인이 재가노인보다 인지기능이 낮고, 우울증이 더 심각하고 생활만족도는 낮아진다는 배주한, 이해경, 김한수 및 오현주(2008)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노인들이 안정심리로 평생을 살던 자에서 방문 복지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이며, 시설입소 노인의 효과크기가 제일 낮은 것은 시설에서의 불만족감과 가족이나 익숙한 자가와 격리로 인한 불안감 등의 복합적 심리의 표출로 보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노인과 관련한 연구들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한 적응변인들의 메타분석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연구에서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메타분석을 통해 정리함으로써 이 두 변인들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결과 생활만족도와 정적적응은 높은 효과크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만족도와 부적적응은 중간정도의 효과크기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으면 정적인 적응이 매우 높은 것을 의미하지만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부적적응을 심하게 낮추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노인들에게 있어서 생활만족도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심리·사회적 적응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심리·사회적 적응을 정적적응과 부정적응으로 구분하여 조절변인들에 따라서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심리·사회적 적응을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정적적응에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직업이 있는 경우 보다는 직업이 없는 경우 효과크기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생활만족도가 높으면 가족관계의 질, 스트레스 대처능력, 사회적 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부정적응의 관계를 보면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신증, 스트레스, 우울, 절망감, 죽음에 대한 불안 등을 낮추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볼 때 노인들에게 중요한 것으로는 높은 생활만족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을 단순히 사회에서 부양하기 어렵고 힘든 존재로 인식하기보다는 국가 및 사회발전에 공헌한 노고를 인정해주며, 일정 이상 연령대의 노인을 대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노후를 보장해 주어야한다고 본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적응관련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동기, 정서 부분의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지는데 비해 아직 메타분석을 통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한 이들 분야와의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변인과의 관계에서 노인의 연령, 도시와 농촌 등 다양한 조절변인들을 분석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들 변인들을 추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강난미, 정현희 (2014). 노인의 우울, 절망감과 자살생각 간의 구조적 관계. *인간발달연구*, 21(2), 37-54.
- 강봉규 (2016). *인간발달과 교육*. 서울: 태영출판사.
- 강주령, 김명자 (1991). 가족관계에 따른 노년 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2), 185-197.
- 강지애 (2015).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화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인순 (2008). *노인 만성질환자의 무력감, 건강 증진행위, 가족지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탐라대학교 경영·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인선 (2006). *생활무용프로그램이 여성 독거노인의 정신건강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달호, 박병구, 손중권, 송재기, 이경은, 이인석, 조교영, 조길호, 최진갑 (2008). *엑셀을 이용한 통계학*. 서울: 자유아카데미.
- 김동배, 손의성 (2005). 한국 노인의 우울 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노년학*, 25(4), 167-187.
- 김명숙, 고종욱 (2013). 노인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대한 통합적 접근.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3(6), 246-259.

- 김미점, 조한익 (2015). 희망과 적응관련 변인의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 *교육심리연구*, 29(2), 331-360.
- 김성희 (2008). 양로원 여성노인의 신체적 여가활동이 스트레스, 고독감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17(3), 367-374.
- 김성희 (2012). 노인의 생활만족도 및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죽음 준비교육의 효과: 죽음불안태도의 매개효과 분석. *가천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신향, 박경숙 (2016). 한국 노인의 죽음불안과 관련된 변인의 메타분석. *성인간호학회지*, 28(1), 156-168.
- 김여진, 임연옥 (2015). 한국 노인 주관적 안녕감의 성별차이 메타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5(9), 195-209.
- 김영기 (2007).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호남대학교 복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숙 (2013). 노년기 교육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승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인홍 (2000).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운동요법과 정신건강. *정신간호학회지*, 9(3), 328-343.
- 김재현 (2013). 노인들의 여가 참여특성에 따른 우울감, 사회적응 여가만족,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종수 (2007). 노인대학 참여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중협 (2006). 농·어촌 거주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준형 (2011).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권 (2007). 은퇴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가 생활만족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성남시 노인여가시설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행 (2006). 노인의 외로움과 정서적지지 및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창수 (2013). 노인여성의 활동체력과 우울증,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분석.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향선 (2011). 고령자의 자원봉사활동과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간의 관계.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순 (2008).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생활만족도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동규 (2012). 노인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유발변인의 메타회귀분석. *노인복지연구*, 55, 133-157.
- 박선애, 허준수 (2013). 노인의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교성의 조절효과. *노인복지연구*, 62, 79-108.
- 박성희, 이지연 (2006). 노인의 무력감,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7(1), 65-73.
- 박순미 (2010). 노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에

- 관한 비교연구: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특성 비교. 노인복지연구, 47, 137-160.
- 박영민 (2011). 남녀노인의 성공적 노화 지각과 생활만족도 관계 비교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주한, 이해경, 김한수, 오현주 (2008). 시설노인과 재가노인의 일상생활활동, 정신건강 상태, 생활만족도 비교분석. 대한물리치료학회지, 20(2), 33-41.
- 서선희, 조미숙, 김유리, 안지윤 (2013). 재가노인의 삶에서의 음식만족도와 우울, 고독감, 사회적 지지,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19(2), 159-172.
- 서순이 (2010). 저소득 재가노인의 생활만족도, 일상생활활동, 우울 및 건강 행위에 관한 연구. 근관절건강학회지, 17(2), 162-172.
- 서정인 (2009). 노년기 생활만족도에 관련된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친구관계 및 우울.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성일 (2012). 노인의 삶의 질에 관련된 변인들의 메타회귀분석.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창섭 (2009). 농촌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충북 진천군을 중심으로. 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효찬 (2010). 노인의 절망감 영향 요인.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순덕, 한경혜 (2004). 농촌노인의 생산적 활동과 심리적 복지. 한국노년학, 24(2), 55-77.
- 윤유식 (2009). 노인의 종교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죽음불안과 우울을 매개로. 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진 (1982).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 제작 연구. 한국심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6-30.
- 윤현숙, 유희정 (2007). 성공적 노화여부에 따른 중요 생애사건 비교분석. 한국노년학, 27(4), 807-827.
- 윤현희, 김명자 (1994). 남녀노인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적응감 연구. 한국노년학, 14(1), 17-32.
- 이규은 (2013). 성별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 예측요인.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38(1), 1-14.
- 이묘숙 (2010). 노인의 우울 수준이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 및 생활만족도 조절효과 연구. 노인복지연구, 49, 241-265.
- 이우숙 (2008).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은 (2014). 노인의 상실감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종운, 김영숙 (2015). 농촌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34(2), 67-102.
- 이현숙 (2009). 양로시설 입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영 (2007). 재가노인의 신체적 기능, 정서상태와 생활만족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

- 사학위논문.
- 이호성 (2005). 도시노인의 사회적 유대와 생활만족도 연구. *한국노년학*, 25(3), 123-138.
- 임미숙 (1985). 도시노인의 노인정참여와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활동이론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실증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진주 (2007). 재가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진경 (2004). 노인의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 연구 1. *대한가정학회지*, 42(12), 31-54.
- 정원숙 (2011). 사회·경제적 요인과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이 노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유리, 이신숙 (2013). 노년기 여가활동 활성화 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 노인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5(2), 49-63.
- 조은실, 김영숙, 조한익 (2014). 유아의 읽기프로그램이 언어능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교육심리연구*, 28(4), 619-649.
- 최성재 (1986). 노인의 생활만족도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49, 223-256.
- 최은진 (2008). 노인의 우울,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 관계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지, 이영분 (2006). 구조적 차원성 탐색을 통한 노인 생활만족도 척도의 재발견. *한국사회복지학*, 58(3), 27-49.
- 통계청. (2016). 2016 맞춤 통계. 서울: 통계청.
- 한상미 (2011). 노인의 사회적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 여가만족과 고독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3), 157-182.
- 황성동 (2014). 알기 쉬운 메타분석의 이해. 서울: 학지사.
- Atwater, E. (1991). *Psychology of adjustment: Personal growth in a changing world*. New York: Prentice Hall.
- Atwater, E. (1992). 적응심리: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개인성장. 김인자(역). 서울: 정민사. (원본발간일, 1991)
- Borenstein, M., Hedges, L. V., Higgins, J. P. T., & Rothstein, H. R. (2009). *Introduction to meta-analysis*. England: London, Wiley.
- Cooper, H. (2010). *Research synthesis and meta-analysis: A step-by-step approac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Kalish, R. O. (1975). *Late adulthood: Perspective in human development*. Monterey, CA: Brooks/Cole.
- Krause, N. (2004). Common facets of religion, unique facets of relig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African American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9(2), 109-117.
- Lazarus, R. S. (1976). *Patterns of adjustment*.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 Linley, P. A., & Joseph, S. (2004). *Positive psychology in practice*. Hoboken, NJ: Wiley.
- Lipsey, M. W., & Wilson, D. B. (2001). *Practical*

- meta-analysis*.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 Lopez, S. J., & Snyder, C. R. (2003). *Positive psychological assessment: A handbook of models and measures*. Washington: APA.
- Neugarten, B. L. (1968). *Middle age and ag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evid, J. S., & Rathus, S. A. (2013). *Psychology and the challenges of life: Adjustment and growth*. New York: John Wiley & Sons.
- Nevid, J. S., & Rathus, S. A. (2016). 심리학과 삶의 도전: 적응과 성장. 오경자, 강성록, 김현수, 양재원, 이주은(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본발간일, 2013)
- Pollack, O., & Heathers, G. (1993). Social adjustment in old age: A research planning report. *Sociological Practice*, 11(1), 33-39.
- Radecki, S. E. (1990). Health promotion for elderly patients. *Family Medicine*, 22(4), 299-302.
- Rosenthal, K. (1979). The file drawer problem and tolerance for null results. *Psychological Bulletin*, 86(3), 638-641.
- Snyder, C. R., & Lopez, S. J. (2002).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Snyder, C. J., & Lopez, S. J. (2007). *Positive psychology: The scientific and practical explorations of human strengths*. London: Sage.

1 차원고접수 : 2017. 01. 06.

수정원고접수 : 2017. 02. 09.

최종게재결정 : 2017. 03. 04.

Meta-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Old Adults' Life Satisfaction and Adjustment-Related Variables

Jung, Jang Hyun

Cho, Han Ik

Dept. of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e study aimed to systematically synthesize the life satisfaction and adjustment-related variables of the elderly by meta-analysis. Also, the study aimed to verify whether there were differences on effect sizes depending on the moderator variables (type of thesis, date of publication, gender, occupation, volunteering experience, and participation method). For the analysis, 102 studies on the relation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adjustment were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ffect size of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nd positive adjustment was high, but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nd negative adjustment was moderate. According to the total effect size of life satisfaction and individual adjustment variables,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 was the highest among the positive adjustment variables, and stress was the highest among the negative adjustment variables. The effects of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life satisfaction and adjustment-related variables of the elderly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type of publication, publication year, gender, and participation of volunteer servic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researchers discussed the relevance of previous studie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research.

Keywords: old adults' life satisfaction, adjustment-related variables, meta-analysis

부록. 메타분석에 사용된 논문(102편)

- *강경희 (2013). 도시재가 여성독거노인의 건강 수준과 생활만족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현옥, 황혜원 (2009). 직업 활동 참여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4, 89-110.
- *강환세, 마은경 (2008). 노인복지시설 사회화와 시설노인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과의 관계. 노인복지연구, 39, 303-322.
- *고인순 (2008). 노인 만성질환자의 무력감, 건강증진행위, 가족지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탐라대학교 경영·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숙, 고종옥 (2013). 노인 생활만족도 결정 요인에 대한 통합적 접근. 한국콘텐츠학회지, 13(6), 246-259.
- *김미란 (2013). 노년기 평생교육 참여 동기 및 만족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숙, 김선정 (2012). 노인의 여가만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7(1), 739-748.
- *김상식 (2011).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희 (2008). 양로원 여성노인의 신체적 여가활동이 스트레스, 고독감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17(3), 367-374.
- *김성희 (2012). 노인의 생활만족도 및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죽음 준비교육의 효과: 죽음불안태도의 매개효과 분석. 가천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희, 송양민 (2013). 노인죽음교육의 효과 분석. 보건사회연구, 33(1), 190-219.
- *김소남, 이상복 (2013).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영적안녕, 사회적 지지, 생활만족도 및 우울의 관계. 동서간호학회연구지, 19(2), 196-204.
- *김연경 (2007).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의 건강상태와 생활만족도 관련요인: 무료시설과 유료시설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기 (2007).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호남대학교 복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숙 (2013). 노년기 교육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재식 (2007). 재가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엽, 권복순 (2007). 노인의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노인복지연구, 37, 111-130.
- *김정엽, 이대주 (2012). 시설입소노인과 주간보호센터 이용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역사회연구, 20(2), 45-66.
- *김종수 (2007). 노인대학 참여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협 (2006). 농·어촌 거주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준형 (2011).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영 (2011). 여가 활동 참여 여부가 노인의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우울,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행 (2006). 노인의 외로움과 정서적지지 및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창수 (2013). 노인여성의 활동체력과 우울증,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분석.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춘길, 박혜자 (2007). 복지관 이용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인간호학회지, 19(4), 535-546.
- *김향선 (2011). 고령자의 자원봉사활동과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간의 관계.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홍남 (2012). 궁도 참여 노인의 정신건강, 여가 유능감이 궁도 참여도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구조모형 분석. 한국노년학, 32(4), 1013-1023.
- *김홍록, 이광욱 (2014). 은퇴노인의 여가스포츠 참여추진 요인과 재사회화, 회복탄력성, 생활만족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6(1), 531-542.
- *김홍식, 양재환, 김 공 (2007). 노인의 운동재활프로그램이 정신건강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18(3), 141-149.
- *김희순 (2008).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생활만족도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동석, 김영대 (2011). 노인의 성생활과 성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52, 185-203.
- *남기민 (2006).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한 노인의 활동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사회복지연구, 30, 303-328.
- *노단단, 민현주 (2014). 노인건강운동 참여자의 주관적 건강인지에 따른 삶의 질 및 생활만족도의 관계.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2(4), 1-16.
- *류기형 (2013). 노인의 자원봉사참여 동기충족이 생활만족 및 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2), 145-172.
- *박근수, 황대욱 (2010). 원예활동 여가프로그램이 농촌노인의 정신건강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25(5), 333-348.
- *박미진 (2010). 빈곤노인의 사회적 고립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0(3), 859-910.
- *박선희, 서순림, 김홍순 (2015). 여성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우울, 생활만족도와 관련 영향요인. 동서간호학연구지, 21(2), 119-125.
- *박성희, 이지현 (2006). 노인의 무력감,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7(1), 65-73.
- *박순미 (2010). 노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특성 비교. 노인복지연구, 47(1), 137-160.

- *박연지 (2012). 중 노년기 여성의 개인변인과 가족관계 변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민 (2011). 남녀노인의 성공적 노화 지각과 생활만족도 관계 비교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차은 (2013). 노인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와 사회적 역할상실감 및 생활 만족도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순, 나동석 (2008). 취업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40, 147-172.
- *서선희, 조미숙, 김유리, 안지윤 (2013). 재가 노인의 삶에서의 음식만족도와 우울, 고독감, 사회적 지지,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19(2), 159-172.
- *서순이 (2010). 저소득 재가 노인의 생활만족도, 일상생활활동, 우울 및 건강 행위에 관한 연구. 근관절건강학회지, 17(2), 162-172.
- *서원홍 (2008). 성공적 노화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정인 (2009). 노년기 생활만족도에 관련된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친구관계 및 우울.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지혜 (2008). 노인의 건강증진행위와 우울 및 생활만족도의 관계. 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지혜, 류현숙 (2010). 노인의 우울, 생활만족도와 건강증진행위의 관계.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1(2), 169-177.
- *석소현 (2008). 독거노인과 가족동거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 가족지지 및 생활만족도에 관한 비교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9(4), 564-574.
- *소광섭 (2007). 도농복합도시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 연구. 노인복지연구, 38, 7-30.
- *손희성 (2011). 노년기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노인복지관 이용노인들의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양민, 유 경 (2011). 죽음준비교육이 노인의 죽음불안과 생활만족도,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연구. 노인복지연구, 54, 111-134.
- *송 은 (2006).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연구: 경기도 양주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수태, 빈성오 (2011). 대구지역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7(2), 23-52.
- *신창섭 (2009). 농촌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충북 진천군을 중심으로. 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준희, 임경춘, 이윤정, 김경식 (2011). 컴퓨터인터넷게임 활동이 노인의 우울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7), 406-417.
- *원종순, 김계하 (2008). 방문간호 대상 노인의 인지기능 우울 및 생활만족도 평가. 한국간호학회지, 38(1), 1-10.
- *유용식 (2016).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

- 학회논문지, 16(1), 129-139.
- *유은아 (2009). 노인 자원봉사참여 및 취업활동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유식 (2009). 노인의 종교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죽음불안과 우울을 매개로. 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현숙, 원성원 (2010). 노인의 영성과 종교활동이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0(4), 1077-1093.
- *윤현숙, 허소영 (2007). 노인의 건강상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계의 매개효과 및 중재효과. 한국노년학, 27(3), 649-666.
- *은화연 (2009). 평생교육참여 노인의 심리사회적 안녕감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규은 (2013). 성별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 예측요인.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38(1), 1-14.
- *이규은, 염영희, 한정희 (2012). 노인의 건강상태 여가만족 및 외로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기본간호학회지, 19(4), 483-492.
- *이나윤, 양영애 (2014). 경남지역 정상 노인의 대인관계 능력과 생활만족도 상관관계 조사. 한국고령친화건강정책학회지, 6(1), 43-50.
- *이도림 (2013). 노인 여성의 아쿠아로빅 참여에 따른 정서와 생활만족도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준 (2012). 생활체육 참가 노인의 관여도와 여가만족 운동지속의사 및 생활만족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1(1), 15-26.
- *이묘숙 (2010). 노인의 우울 수준이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 및 생활만족도 조절효과 연구. 노인복지연구, 49, 241-265.
- *이상일 (2013). 노인 생활체육 참여자의 참여 동기, 몰입, 생활만족, 재참여 의사의 관계분석. 한국체육과학회지, 22(4), 579-594.
- *이석인, 김대훈 (2007). 게이트볼 활동이 노인의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16(2), 257-266.
- *이선훈, 문명자 (2012). 지역 사회 노인의 생활만족도, 건강 행위와 성공적 노후 간의 관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6(2), 204-214.
- *이우숙 (2008).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정 (2011). 골관절염 여성노인의 통증, 수면양상, 생활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1(2), 211-222.
- *이은창 (2009). 노인의 여가활동유형과 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분석.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운, 김영숙 (2015). 농촌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34(2), 67-102.
- *이종운, 허만세 (2012). 청각장애노인의 사회적 고립감 가족기능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1(4), 133-158.
- *이중섭 (2014). 경로당 운영방식에 따른 이용노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6(4), 249-273.

- *이한숙, 윤영선 (2009). 사회체육활동 참여 노인의 신체적 자기개념이 정신 건강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 35(1), 647-660.
- *이혁기, 박진아, 이천희 (2011). 노인의 온천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한국여가 레크레이션학회지, 35(1), 5-16.
- *이현숙 (2009). 양로시설 입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심, 남희수 (2010). 농촌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우울감, 자아존중감 및 사회활동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농촌지도와 개발, 17(4), 957-984.
- *이혜영 (2007). 재가노인의 신체적 기능, 정서상태와 생활만족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호성 (2005). 도시노인의 사회적 유대와 생활만족도 연구. 한국노년학, 25(3), 123-138.
- *이화자 (2006). 시설노인의 우울,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간의 관계연구. 간호과학, 18(2), 31-38.
- *임진주 (2007). 재가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명숙, 박경숙 (2012).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사회연구, 32(2), 232-266.
- *장숙희, 김창숙, 김미란 (2008). 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동서간호학연구지, 14(2), 39-46.
- *전병주 (2014). 남성 노인의 성 대처행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5(2), 163-182.
- *전병주, 최은영 (2015). 노인의 사회적 배제 특성, 주거 점유형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관계망의 완충효과. 사회과학연구, 26(1), 77-107.
- *전혜원 (2011). 재가노인의 우울 자아존중감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생활만족도. 한국생활환경학회지, 18(6), 656-666.
- *정원숙 (2011). 사회·경제적 요인과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이 노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일영 (2015). 과거 노후준비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9(3), 161-191.
- *조선훈 (2010). 남성 노인의 노후준비도가 노후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현경 (2013).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외로움 및 사회적 지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진 (2014). 노년기 여가활동 적극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연희 (2005). 거주형태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성인간호학회지, 17(3), 400-410.
- *최은진 (2008). 노인의 우울,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 관계 연구. 경희대학교

-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희자 (2014). 노인대학 학생들의 사회적 지지와 우울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은평구를 중심으로.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경분, 주민경, 송선희 (2014).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노인의 참여만족도와 생활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지, 14(10), 160-170.
- *한상미 (2011). 노인의 사회적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 여가만족과 고독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3), 157-182.